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74

▶ 75회 예고
수상 라다굽따가 노환으로 물러나자 마하데바라가 재등장한다. 마하데바라는 아쇼까왕 즉위 2년에 깔링가국 정벌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추방당했다. 아쇼까왕은 그를 찾아서 수상에 임명하고 깔링가국 정벌을 결심한다.



아쇼까왕, 믿음의 상속자가 되다

잠부띠바 전역에 8만 4천 사원의 건립을 기념하는 축제가 빠딸리뿌뜨라 외성과 내성에서 시작됐다. 아쇼까왕은 라다굽따 수상에게 7일 동안 축제를 벌이도록 지시했다. 축제는 왕의 대관식 때와 같이 끄샤뜨리야 계급의 숫처녀가 히말라야의 호수 아노땃따에서 가져온 물을 아쇼까왕의 머리에 뿌리는 의식부터 행했다.

다섯째 날부터 엿새째 날까지는 연날리기와 검술시범, 활쏘기, 창던지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고, 마지막 이레째 날에는 성민 모두가 참여한 연회가 열렸다. 아쇼까왕은 연단에 마련된 보좌(寶座)에서 일어나 연회장에 운집한 수행자들과 왕실귀족, 성민들에게 짧은 연설을 했다.

"나 또한 고타마 붓다의 다르마를 상속한 사람이오. 믿음의 정수를 설하는 사문들에 대한 나의 관대함은 위대할 뿐이오. 나는 9억 6천만이라는 엄청난 재원으로 8만 4천의 사원을 건립하였소. 각각의 사원은 고타마 붓다께서 설한 8만 4천 법문을 기리기 위한 것이오.

매일 40만의 경비가 지출되었소. 10만은 명예로운 사원들을 위해, 10만은 니그로다를 위해, 10만은 다르마를 설하는 사문들을 위해, 그리고 나머지 10만은 걸식자를 위한 것이었소. 강가강과 똑같은 양의 음식이 매일 제공되었소.

나보다 더 관대한 왕은 지금까지 없었소. 나의 믿음은 실로 확고한 것이오. 그러므로 나는 승가의 보호자인 것이오."

아쇼까왕의 짧은 연설이 끝나자, 연회장에 모인 수 만 명의 불교사문들이 일제히 합장한 뒤 엎드려 절을 했다. 아쇼까왕의 보좌 옆에 앉은 아쇼까라마 주지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도 연단 좌석에서 일어나 아쇼까왕에게 합장하며 예를 표했다. 뒤이어 연회장에 모인 귀족과 성민, 천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잦아들자 아쇼까왕이 고개를 돌리며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에게 말했다.

"장로시여, 내 연설이 어땠소?"

"대왕님이시여, 잠부띠바에 8만 4천 사원을 지으신 대왕님이야말로 승가를 보호하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9억 6천만의 재원을 들여 사원을 건립한 신들의 사랑을 받는 왕(데바남쁘리야)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오."

아쇼까왕 옆에 앉은 라다굽따는 어두운 얼굴이 되었다가 고개를 끄덕이는 등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전국 도시마다 사원을 지으면서 왕궁 창고가 3년 만에 바닥이 나다시피 했기 때문이었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가 덤덤한 말투로 대답했다.

"친절한 대왕님(삐야다시)이시여, 승가에 필요한 물건을 가장 많이 보시하신 것은 맞습니다."

"승가는 나에게 또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소?"

"대왕님께서는 승가를 보호하는 왕이실 뿐 아직 확고한 믿음은 바깥에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바깥에 있다니 무슨 말씀이오?"

"믿음의 상속자가 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는 라다굽따를 한 번 쳐다본 뒤 말했다. 라다굽따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쇼까왕이 처음에는 브라흐마교나 자이나교, 그밖에 군소종교 수행자들에게 우호적이었는데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를 만나고 나서는 급격하게 승가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아서였다. 더구나 라다굽따 자신은 브라흐마교를 신봉하는 제관 출신이었던 것이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아쇼까왕에게 거침없이 아뢌다.

"믿음의 상속자가 되시려면 승가에 아들이나 딸을 보내서 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알다시피 하나밖에 없는 동생 비가따쇼까, 사위, 외손자가 출가했소. 그런데도 아들과 딸까지 출가해야 한단 말이오?"

아쇼까왕의 말은 사실이었다. 아쇼까왕이 브라흐마교에 빠진 비가따쇼까를 불교로 개종시켰고, 사위 악기브라흐마와 외손자 수마나까지 목갈리뿟다띳사를 스승 삼아 출가시켰던 것이다. 아쇼까왕은 동생과 사위, 외손자가 출가했는데 또 아들과 딸까지 수계를 받아야 한다는 목갈리뿟다띳사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그것이 내게 무슨 이익을 준단 말이오?"

"대왕님은 이미 신들의 사랑을 받는 친절한 왕(데바남쁘리야 삐야다시, 天愛喜見王)이십니다. 거기에다 실로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믿음의 상속자라, 좋소."

아쇼까왕은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최면에 걸린 듯 호응했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의 말을 모두 받아들였다.

"나는 장로의 부탁을 다 들어주었소. 그러니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을 나와 성민들을 위해 설해 주시오."

"대왕님이시여, 짧은 붓다의 가르침을 설하겠습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고타마 붓다의 시를 먼저 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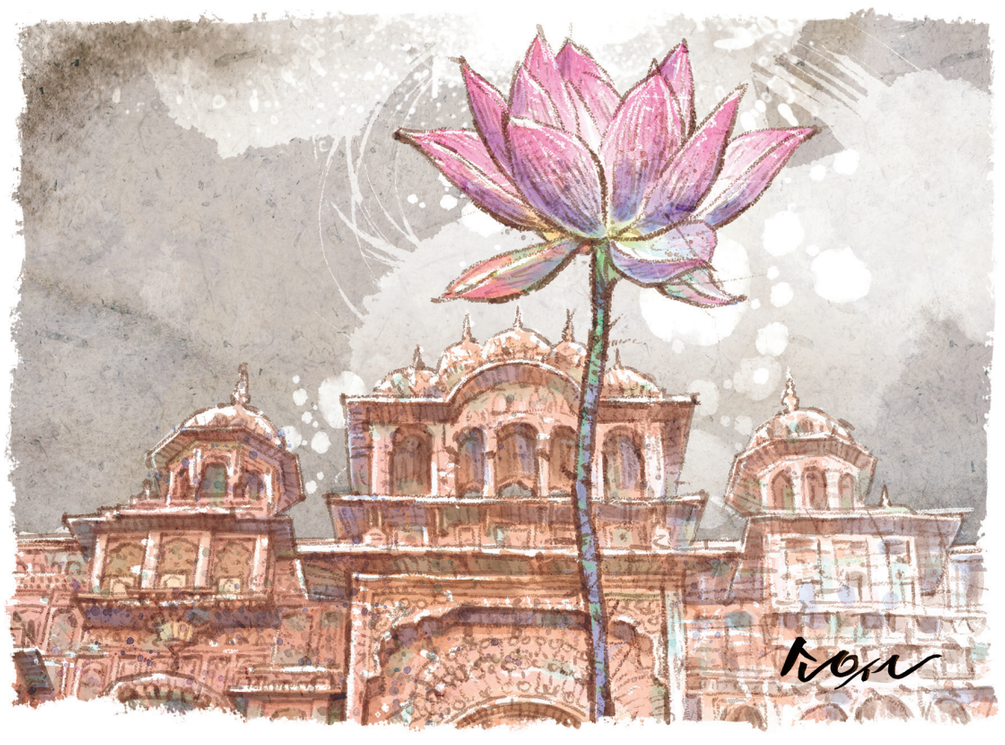
지혜가 없고 삼매가 없이
백년을 사는 것보다
지혜를 갖추고 선정에 들어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이어서 바로 목갈리뿟다띳사는 붓다의 시가 나온 인연담을 설했다. 붓다가 사밧티 제따 숲에 계실 때였다. 카누 꼰당냐 장로와 관련한 이야기였다. 카누 꼰당냐는 붓다에게서 선정삼매에 들라는 말씀을 듣고 숲속으로 들어가 수행하여 거룩한 경지를 성취했다. 카누 꼰당냐는 이 사실을 붓다에게 알리기 위해 숲을 나와 길을 가다가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평평한 바위에 앉아 선정에 들었다.

이때 5백 명의 도둑들이 마을을 도둑질한 뒤 훔친 물건을 각자 머리에 나누어 이고 가다가 밤이 되자 피곤하여 평평한 바위에 앉아서 쉬려고 했다. 도둑들은 선정에 들어 꼼짝 않는 카누 꼰당냐 장로를 나무그루터기로 오인했다. 도둑들은 카누 꼰당냐 머리에 도둑질한 물건을 얹어놓고 또 팔다리에 올려놓았다. 카누 꼰당냐 장로 주위에도 훔친 물건을 쌓아놓고 잠을 잤다. 새벽이 되어 잠에서 깬 도둑들은 카누 꼰당냐 장로를 그제야 발견하고는 귀신인 줄 알고 도망쳤다. 마침 선정에서 깨어난 카누 꼰당냐 장로는 "재가제자들이여, 두려워 말라. 나는 수행자다"라고 소리쳤다.

그제야 도둑들이 카누 꼰당냐 장로에게 다가와 발아래 엎드린 뒤 "저희는 나무그루터기로 잘못 알았습니다"라면서 용서를 빌었다. 그때 우두머리 도둑이 "나는 장로님 밑에서 수행승이 되겠다"라고 말하자 다른 도둑들도 모두 수행승이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장로의 이름은 카누 꼰당냐가 되었고, 붓다는 '지혜가 없고 삼매 없이 백년을 사는 것보다 지혜를 갖추고 선정에 들어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라는 시를 읊조렸던 것이다.



그날 밤.

아쇼까왕은 다르마 대비 별궁에 있는 마힌다와 상가밋따를 불렀다. 두 남매는 연회장에 나오지 않고 다르마 대비별궁에 갇혀 있다시피 했던 것이다. 대비별궁은 두 남매에게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왕자별궁에 사는 왕자들이 두 남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르므로 다르마 대비가 두 남매에게 밖으로 나가지 말도록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다.

"사랑하는 손자, 손녀야. 나는 왕자들이 죽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봐왔단다. 백성들은 왕궁을 천계(天界)같이 여기지만 내 눈에는 지옥으로 보일 때가 많았단다. 그러니 가능한 한 내 별궁을 나가지 않도록 하거라."

다르마 대비는 아쇼까가 왕위에 오르는 동안 죽어간 수시마부터 그밖에 99명의 왕자를 잊지 못했다. 그 사건들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 잠을 자지 못했다. 다르마 대비가 브라흐민 딸로 태어나 브라흐마교를 믿지 않고 불교 사문들에게 의지하게 된 것도 다 죽은 왕자들 때문이었다.

아쇼까왕 침전 다실에는 아쇼까왕의 유일한 조언자 라다굽따가 두 남매보다 먼저 와 있었다. 아쇼까왕이 침전 다실로 들어와서 말했다.

"대비별궁에 있는 아들과 딸을 불렀소."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의 권유를 따르시겠습니까?"

"마우리아 전 도시에 8만 4천개의 사원을 건립하였으니 이제 나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고 싶소."

라다굽따는 두 남매가 출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두 남매는 대비별궁에서 자유가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다르마 대비의 말을 듣고서 라다굽따도 수긍하고 공감했던 것이다. 라다굽따는 수십 명의 왕자들이 죽어간 현장 안팎의 증인이기도 했다.

두 남매는 바이샤 계급으로서 신분적 한계 때문에 왕궁은 살 곳이 못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모하고 불행한 일이었다. 데비 부인이 빠딸리뿌뜨라로 오지 않은 것은 현명한 처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만약 데비가 빠딸리뿌뜨라로 왔다고 해도 왕비가 되지 못한 채 부인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을 것이었다. 아쇼까왕이 라다굽따에게 조언을 구했다.

"수상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아드님과 따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두 남매분께서 대왕님의 당부를 따른다면 모두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상께서는 반대하지 않는구려."

"아드님과 따님은 반드시 답답한 왕궁을 떠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의 조언을 믿겠소."

그때 마힌다와 상가밋따가 침전 다실로 친위대 조장의 안내를 받아 들어왔다. 잠시 후 라다굽따와 친위대 조장이 나가자 아쇼까왕이 말했다.

"그동안 잘 지냈느냐?"

"할머니께서 너무 잘 보살펴주십니다. 다만, 아무 불편은 없지만 새장에 갇힌 새처럼 답답합니다."

"왕궁이 싫으냐?"

"대왕님을 뵀으니 저희들은 베디샤나가르 농원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는 너희들이 출가한다면 내가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더구나."

마힌다 얼굴이 환해지며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믿음의 상속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나는 얻을 것을 다 얻은 왕이다.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상가밋따가 말했다.

"제 꿈이 맞나 봅니다. 오빠와 제가 코끼리로 변해 우리에 갇혀 있었는데, 대왕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어 마음껏 들판을 달렸지요.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서 풀과 물을 마음껏 먹은 뒤 또 달려가자 바다가 나왔어요. 그때 대왕님께서 배를 내주시어 바다를 건너갔는데, 오빠와 제가 갑자기 수행승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꿈에 코끼리가 됐다니 상서로운 꿈이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에게 얘기를 다했으니 내일 아침에 아쇼까라마로 가거라. 그러면 장로가 너희들에게 계를 줄 것이다."

마힌다와 상가밋따는 아버지 아쇼까왕과 헤어진 뒤 친위대 조장을 따라서 다르마 대비별궁으로 돌아왔다. 다르마 대비는 두 남매의 이야기를 듣고는 몹시 안도했다. 두 남매가 베디샤나가르로 돌아가지 않고 아쇼까라마의 수행자가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르마 대비는 두 남매가 사문이 되더라도 자신의 곁에 있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는 아쇼까왕도 마찬가지였다.〈계속〉

